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able with 4 columns: 05:00, 09:40, 14:45, 19:30. Row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Table with 4 columns: 00:00, 12:10, 15:20, 17:50. Rows showing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3월 3일 癸卯)

Table with 2 columns: Animal zodiac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이인임은 딱 내것  
연기의 恨 풀었다”

드라마 ‘정도전’서 이인임 역 박영규

5개월 전 배우 박영규(61)의 절치부심이 100% 적중했다.

“정도전” 대본을 보니 이인임 역이 운명적으로 다가왔어요. 모처럼 연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줄 기회인 것 같아요.”

최근 종로구 수송동에서 다시 만난 그는 어느덧 ‘정도전’ 인기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며 호평 속에 퇴장을 앞두고 있었다.

“제 안의 구석에 차 있던 연기의 한을 풀었어요. 그간 보여주지 못한 걸 다 쏟아부어 어감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의 이야기로, 역사적인 고증과 감각적인 재미를 엮은 정통 사극으로 평가받으며 시청률 16%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박영규는 수구세력의 정점에 선 권모술수의 대가이면서 정치 혜안(慧眼)이 있는 이인임을 실력있는 악역으로 그려내며 주인공을 넘어선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22일 방송에서는 이인임이 이성계(유동근 분)와 최영(서인석)의 협공에 촉출돼 귀양 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인임은 귀양 길에서 만난 정도전(조재현)에게 “거지필반(去者必返)이라는 말도 있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며 정계 복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을 드러냈다.

이인임의 정치 생명이 막바지에 달하자 “그동안 ‘대하사극 이인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전”이 연말 직전에 방송됐다던 연기 대상은 박영규에게 돌아갔을 것이다”란 댓글이 올라왔다.

사실 박영규도 처음엔 이인임 역을 제안받고 ‘어떤 인물이지?’라고 생각했다. 역사적인 인물 중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는 “대본 세 개를 받아 읽었는데 고려의 실질적인 정권을 잡은 이인임의 캐릭터가 운

명처럼 다가왔다”며 “이인임의 기질, 민족적인 역사관 등 나와 비슷한 구석도 있었다.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기 폭이 넓은 사람이 해야 하는 역이었고 딱 내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인임이 노채(裴峽峽)로 투병하며 각혈을 하는 장면에선 자신의 짧은 날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도 29살 가난한 연극배우 시절 폐결핵에 걸려 2년간 투병하며 생사를 오간 적이 있다.

“당시 몸무게가 42kg까지 줄었는데 보건소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안 되니 어머니가 개고기, 뱀 등 똘에 좋다는 걸 다 먹여서 살렸어요. 이때 정말 피를 많이 토했죠. 이 역시도 이인임과의 인연이죠.”

박영규는 이인임이 단편적인 악역에 머물지 않은 건 10년간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오가며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현민 작가의 현실 정치 경험이 필적으로 잘 녹아났기 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도전’에서 이인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한 주 전에 나오는 대본을 받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는 그는 “역할을 사랑하니 안 외우려 해도 대사가 외워진다”고 말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마치 시작처럼 연기를 대하는 남다른 이유를 털어놓았다. 2004년 3월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아들 때문이다.

“전작인 ‘보스를 지켜라’, ‘백년의 유산’ 등 작품이 잘 될 때마다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 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배우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연기는 열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그 배역에 들어가느냐 인데 아들 덕에 사사로움 욕심이 없으니 ‘정도전’에서도 통한 것 같아요.”

연출뉴스

이병헌 ‘터미네이터5’ 캐스팅... “배역은 협의중”

배우 이병헌이 새롭게 돌아오는 할리우드 시리즈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 출연한다. 소속사는 “지난 2월 출연을 확정 지었고 현재 역할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지아이조’나 ‘레드’ 등 전작들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1일 전했다.

스카이댄스와 파라마운트가 제작하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영화지만, 4편까지 개봉한 기존 터미네이터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는 ‘리부트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영화다.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과 영화 ‘토르: 다크 월드’를 연출한 엘런 테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1~3편에서 주연을 맡고 4편에서는 캘리 포니아 주지사 임기 중이어서 빠졌던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다시 주연을 맡고 제이슨 클라크가 존 코너 역으로, 에밀리라 클라크가 존의 엄마 사라 코너 역으로 캐스팅됐다. 영화는 5월 초 촬영을 시작해 내년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예술담은 장인들 때문 제작 현장



극한직업(EBS·밤 10시45분)=봄을 맞아 건설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는 곳. 수작업으로 대문을 만드는 이곳은 평균 경력 25년의 장인들이 매일 뜨거운 용해로와 흙더미를 오가며 주물 대문을 찍어내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문의 종류와 800가지. 다양한 디자인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십 년의 경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의 한복판, 한옥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한옥 인테리어 현장을 찾았다. 현관부터 거실, 안방까지 곳곳에 한국의 정서가 묻어나는 전통 창호 시공으로 한창인 이곳. 전통 문을 만드는 일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건축 속에 예술을 담는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장인들의 문(門) 제작 현장을 소개한다.

주현미, 박명수 작곡 노래 열창



밀리언셀러(KBS2·밤 11시)=가수 주현미가 박명수가 작곡한 노래를 열창한다. 특히 주현미는 일렉트로닉 장르에 도전한다. 박명수는 지난달 26일 첫 방송한 ‘밀리언셀러’에서 김준현과 국민작사가를 만나 춤추며 빠져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의 사연을 들었다. 박명수는 유쾌한 부부의 이야기를 일렉트로닉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박명수 특유의 댄스곡으로 만들어 냈다. 주현미는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를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생각보다 비트가 빠르지 않아 놀랐다”고 말해 박명수를 당황하게 했다. 쇼케이스 녹화 당일 ‘밀리언셀러’의 4곡 중 유일한 댄스곡이었던 박명수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이 박명수의 후렴구를 따라 불러 다른 작곡가들을 놀라게 했다.

‘얼굴 없어야 할 가수’ 특집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MBC·밤 11시15분)=‘얼굴 없어야 할 가수’ 특집에 이승환, 정지찬, 린, 정준일이 출연한다. 이승환의 음원이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보고 MC들은 이승환에게 “어린 왕자 맞네, 맞아”라며 컴백을 축하해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싫어하게 된 이유를 덧붙이며 답변했다. 또한 MC들은 이승환의 의상을 보고 “오늘은 지드래곤을 겨냥한 의상인가”라고 묻자 이승환은 “지드래곤은 나의 패션 롤 모델(본보기)이다”라며 본인이 소지한 독특한 목걸이를 자랑해 스튜디오에 웃음을 자아냈다. 연예계 마당발 린이 조인성과 친해지게 된 계기와 라디오에서 단련한 입담 정지찬이 여행지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환대 받은 사연도 소개된다.